

국제학술지 투고 전 체크리스트

48 항목

데스크 리뷰의 대부분은 원고의 수준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항목에서 나옵니다.
투고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한 시간에 쓰도록 만든 목록입니다.

HJ Institute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· hjitm.com · 2026

쓰는 법. 여섯 영역을 순서대로 확인하고, 해당 없는 항목은 건너뜁니다. 한 영역에서 미확인 항목이 셋 이상이면 그 영역을 정리하기 전에는 투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. 마지막 장의 판정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.

1. 저널 적합성

JOURNAL FIT

가장 흔한 반려 사유이며, 원고를 고치지 않고도 해결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.

- ☐ 목표 저널의 **ISSN**으로 Master Journal List·Scopus Sources에서 등재를 직접 확인했다 (저널 홈페이지 표기는 근거가 아님)
- ☐ 수록 **시작 연도**가 내 게재 예정 시점보다 앞선다 (중단된 저널이 아니다)
- ☐ 소속 기관의 **실적 인정 기준**(색인 종류·분위)에 이 저널이 부합한다
- ☐ 최근 12개월 게재 논문 20편을 훑었고, 내 원고와 **분석 수준·종속변수**가 유사한 논문이 3편 이상 있다
- ☐ 그 3편 이상을 내 원고에서 **실제로 인용**했다
- ☐ Aims & Scope의 문장 중 내 연구가 해당하는 대목을 **지목**할 수 있다
- ☐ 1지망이 반려될 경우의 **2·3지망**과 각각의 심사 기간·APC를 표로 갖고 있다
- ☐ APC가 있다면 금액과 지불 주체·시점을 **사전에** 확인했다

2. 기여와 논리

CONTRIBUTION

편집자가 초록과 서론 마지막 문단만 읽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.

- ☐ 이 논문이 기존 문헌의 **무엇을 수정하는지**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("아직 연구가 부족하다"는 기여가 아님)
- ☐ 서론 마지막 문단에 기여가 **2~3개로 번호** 매겨 정리돼 있다
- ☐ 연구 질문과 가설이 **이론**에서 도출되며, 변수 나열이 아니다
- ☐ 사용한 이론의 **경계조건**(어디까지 적용되는가)을 논의에서 다룬다
- ☐ 제목·초록·서론·결론이 **같은 기여**를 말한다
- ☐ 초록에 목적·방법·표본·주요 결과·시사점이 모두 들어 있다
- ☐ 선행연구 검토가 **최근 3년** 문헌을 포함한다
- ☐ 목표 저널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**그 저널의 대화**에 참여하고 있다

3. 자료와 방법

DATA & METHOD

주장을 자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원고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.

- ☐ 표본이 연구 질문의 **모집단**을 대표하며, 그 근거를 서술했다
- ☐ 수집 **시점·경로·기간·응답률**과 제외 기준이 기술돼 있다

- ☐ 표본 수가 모형의 복잡도를 감당한다 (검정력 또는 표본 규칙 근거 제시)
- ☐ 측정문항의 **출처**가 모두 인용됐고, 번안했다면 역번역 절차를 기술했다
- ☐ 신뢰도(CR· α)와 수렴타당도(AVE), 판별타당도(HTMT 또는 Fornell-Larcker)를 보고했다
- ☐ 다중공선성(VIF)을 확인했다
- ☐ 단일 시점 자기보고라면 **공통방법편의**의 절차적 처치와 통계적 검정을 함께 보고했다
- ☐ 횡단 자료에 **인과 표현**을 쓰지 않았다
- ☐ 매개·조절 효과는 부트스트랩 **신뢰구간**으로 보고했다
- ☐ 통제변수의 **선택 근거**를 밝혔다
- ☐ 결측치·이상치 처리 방식을 기술했다
- ☐ 효과크기를 보고했고, 유의성과 크기를 **구분**해 해석했다
- ☐ 분석에 쓴 소프트웨어와 버전을 명시했다
- ☐ 대안 모형을 검토했거나, 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

4. 연구윤리

ETHICS & IRB

설문·인터뷰 연구도 심의 대상입니다.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 '확인'을 받아야 합니다.

- ☐ IRB **승인번호** 또는 심의면제 확인 사실이 본문에 기재돼 있다
- ☐ 연구 참여자 **동의 절차**(Informed consent)를 방법 절에 기술했다
- ☐ 개인식별정보의 수집·비식별 처리 방식을 밝혔다
- ☐ 웹·소셜 데이터를 썼다면 **이용약관·robots.txt** 준수와 수집 절차를 기술했다
- ☐ 학위논문·학회 발표·프리프린트에서 발전시켰다면 그 사실과 **추가된 부분**을 커버레터에 밝혔다
- ☐ 같은 자료로 쓴 다른 논문이 있다면 연구 질문·변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
- ☐ 저자 순서·기여(CRediT)와 이해상충, 연구비 지원을 모든 저자가 확인했다
- ☐ 생성형 AI를 썼다면 저널 정책에 맞게 사용 범위를 **기술**했다

5. 원고 형식

FORMATTING

내용과 무관하게 돌아오는, 가장 가까운 반례입니다.

- ☐ 본문 분량·초록 단어 수·키워드 개수가 **Author Guidelines**와 일치한다
- ☐ 참고문헌 스타일이 저널 지정 형식이며, **본문 인용과 목록이 1:1**로 맞는다
- ☐ 모든 참고문헌의 DOI·권·호·페이지를 확인했다 (철회된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)
- ☐ 표·그림에 번호와 제목이 있고 본문에서 모두 **호출**된다
- ☐ 그림 해상도와 파일 형식이 지침을 충족한다
- ☐ 블라인드 파일에서 본문·감사의 글·자기인용 표현의 저자 정보를 제거했다
- ☐ Word **파일 속성**(작성자)에도 실명이 남아 있지 않다
- ☐ 줄 번호·행간·페이지 번호 등 심사용 서식을 적용했다
- ☐ 영문 교정을 거쳤고, 핵심 용어를 원고 전체에서 **동일하게** 썼다
- ☐ 시제 사용이 일관된다 (선행연구=현재완료, 절차=과거)

6. 투고 서류

SUBMISSION

편집자가 원고 전문을 읽기 전에 보는 문서입니다.

- ☐ 커버레터에 **연구 질문·기여 한 문장·이 저널을 고른 이유**가 들어 있다
- ☐ 커버레터에 중복 게재 아님, 윤리 승인, 이해상충 진술이 있다
- ☐ Highlights·Graphical abstract·Data availability 등 **요구 문서**를 모두 준비했다
- ☐ 추천 심사위원을 요구한다면 이해상충 없는 후보와 소속·이메일을 준비했다
- ☐ 교신저자 이메일이 **기관 계정**이며 수신이 정상이다
- ☐ 투고 시스템의 저자 정보·ORCID를 모든 공저자에 대해 입력했다
- ☐ 제출 직전 최종본을 PDF로 변환해 **깨진 곳**을 눈으로 확인했다
- ☐ 모든 공저자가 최종본에 **동의**했다

판정 기준

미확인 0~3개 — 투고합니다. 남은 항목은 리비전 단계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입니다.

미확인 4~8개 — 어느 영역에 몰려 있는지 봅니다. 3번(자료·방법)이나 4번(윤리)에 몰려 있으면 투고를 미룹니다. 5번(형식)에만 몰려 있다면 하루면 정리됩니다.

미확인 9개 이상 — 지금 투고하면 심사에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1번과 2번부터 다시 봅니다. 저널을 바꾸는 것만으로 절반이 해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

HJ Institute of Technology and Management

기술경영·사회과학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SSCI·SCIE·A&HCI·SCOPUS·KCI 학술지 게재를 지원하는 독립 연구기관입니다.

이 체크리스트로 걸린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.

hjitm.com · contact@hjitm.com ·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2길 31, 6층